

## 연예종합

## ★STAR FOCUS

싱글 '3년이 지났어'로 돌아온 발라드 황태자

KCM

## “가을은 나의 계절...다 잡아먹을겁니다”

성대결절 치료 끝내고 1년여 만에 컴백  
“피 같은 근육 6kg나 뺐고 머리도 염색해  
이제 발라드 계절 내 매력 다 보여줄 것”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가요계를 잡아먹을 겁니다.”  
탄탄한 복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성. 가수 KCM이 1년여 만에 돌아왔다. 컷가에 속삭이듯 한 작은 목소리와 근육질 몸매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트레이드마크였던 콧수염은 깎았고 검은 머리는 ‘레몬 빛’으로 물을 들였다.  
‘흑백사진’ ‘은영이에게’ 등을 히트시키고 ‘발라드 황태자’로 자리매김한 KCM이 내놓은 싱글 음반 ‘3년이 지났어’의 수록곡 2곡은 그가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까지 했다.  
“사랑은 모든 노래의 매개체 역할을 해요. 가수들의 자작곡 노래 90%가 자신의 경험을 담는데, 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지 3년이 지났던 걸 알았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노래로 표현했어요.”  
이 말처럼 타이틀 곡 ‘3년이 지났어’는 KCM의 사랑 이야기다. 3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은 지난 사랑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담겼다.  
“친구들은 ‘네 인기가 떨어졌지 3년이 지났냐’라고 독설을 퍼붓더군요. 맞는 말이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KCM은 지난해 11월 5집 음반 ‘Part1-Alone’을 발표

했지만, 성대 결절 진단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방송 전 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음반을 제작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독으로 작용했죠.”  
약물치료로 성대도 회복됐다. 쉬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 안될 것 같아 컴백을 서둘렀다.  
“10월에 미니 음반이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오래 쉬면 잊혀지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맛보기’ 차원에서 음반에 실릴 2곡을 빼서 서둘러 돌아왔죠.”  
한꺼번에 ‘확’ 달라진 모습이면 팬들에게 거부감을 줄까봐 이번에 모습만 조금 바꿨다.  
“‘아이돌’스럽게 염색을 해봤어요. 젊어 보인다는 등 반응이 좋네요. 그리고 비수기(활동을 안할) 때는 운동만 해서 몸무게가 85kg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거대한 근육이 부담스러울까봐 6kg를 뺐어요. 남들은 살이 빠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지방이 아니라 피 같은 근육을 뺐거든요.”  
KCM의 이런 의도는 일단 성공적이다. 인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OST중 ‘죽도록 사랑해’와 ‘3년이 지났어’가 연달아 인기를 얻고 있다. 곧 발라드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온다. 마침 환희, 휘성, 김중국, 박효신 등 발라드 가수들이 대거 컴백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동갑인 환희, 휘성, 김태우, 박효신 등등이 컴백 축하 인사와 응원도 해주고 있어요. 솔로 남자 가수들이 성공하면 뒤에 나오는 가수들에게 힘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발라드가 대세인 주기가 돌아왔어요. 또래 친구들과 ‘81년생 가수들이 가요계를 잡아먹자’고 화이팅을 외쳤죠.”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발라드의 계절’ 가을을 겨냥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가수 KCM.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가을 팬들의 귀를 자극할 기세다.

## 최희진 돌변 “사과 아닌 화해”

“용서 구한다” 각서 쓴 후 하루만에 “오해 풀 것”

가수 이루와 결별과정을 놓고 태진아와 공방을 벌여온 작사가 최희진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사과 아닌 화해”라고 밝혔다.  
최희진은 8일 미니홈피 게시판에 올린 ‘정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가 이루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한 것이)아니다. 화해다. 사과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화해는 그동안 서로의 오해와 앙금을 푸는 것인데 어떻게 같겠냐”며 ‘화해’임을 주장했다.  
최희진은 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원 사무실에서 “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태진아와 이루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는 문구가 든 각서에 부모와 함께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또 “이루와의 관계에서 임신, 낙태, 유산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태진아가 나를 모욕했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요했거나,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한 내용 또는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는 내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만일 내가 다시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내가 저지른 명예훼손, 협박, 공갈 기타 여지껏 모든 행동에 대하여 달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시 최희진은 각서에 서명을 한 후 스포츠동아 등 현장에 있던 취재진 앞에서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할발 못할 말..., 잠시 이성을 잃고 선생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말을 한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7kg의 몸무게를 줄이고 섹시한 모습으로 돌아온 가수 문지은. 왼쪽 사진은 김광 전 모습. 사진제공 | 스타샵엔터테인먼트

## ‘스타킹 화보’ 문지은 “7kg 뺐죠”

‘히비에 히비요’ 위해 5개월간 고강도 감량 화제

7일 신곡 ‘히비에 히비요’와 함께 발표한 섹시한 화보로 화제를 모은 가수 문지은이 7kg를 감량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문지은은 이미 4월 ‘히비에 히비요’ 녹음을 비롯한 제반 준비를 마쳤지만, 음반의 비주얼 컨셉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5개월 동안 7kg를 감량해 군살 없는 탄탄한 몸매를 만들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전신 망사스타킹(스킨룩) 장면을 위해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와 식이요법을 병행해왔다.  
문지은은 글래머 몸매를 유지하면서 감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특별한 식단표를 만들어 이를 해결했다고 한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 촬영 직전, 시늉시스를 본 문지은이 감량을 조금 더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촬영 시기가 늦춰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히비에 히비요’는 인기 작곡가 방시혁이 ‘내 귀에 캔디’ 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일렉트로니카 댄스 음악이다. 김원겸 기자 gyummuy@donga.com

## 연예 뉴스 스테이션

폭행 시비 이민기 무고 맞고소...허씨 “이민기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폭행 시비에 휘말려 피소된 배우 이민기가 이를 제기한 이들을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데 대해 경찰이 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민기가 ‘죄도 없는데 폭행 혐의로 피소되고 합의금까지 종용받았다’며 허 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날 허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허 씨는 “이민기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때린 사람에게 대한 수사를 요청하려고 그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 씨가 이민기에게 맞지 않았다고 한 만큼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민기는 지난달 2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앞에서 폭행당했다는 허 씨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바이브 윤민수, 프로듀서로 해외 진출 시도

바이브 윤민수가 만든 음반레이블 와이오 골든브릿지와 소니뮤직이 와이오 소속 가수들의 투자 및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윤민수는 올해 상반기 포텐의 ‘꽃해’에 이어 최근 여성 신인가수 미의 ‘어디에’와 ‘7월15일’을 잇달아 히트시켰다. 소니뮤직에서는 프로듀서 겸 가수인 윤민수의 프로듀서로서 능력을 높이 평가해 적극적인 지원을하기로 했다. 윤민수는 포텐과 미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프로젝트인 여성 3인조 베베미봉을 6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소개했다.

SS501 박정민 가짜 페이스북으로 골치

그룹 SS501의 박정민이 가짜 페이스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의 소속사 CNRM미디어 측은 “최근 자신을 사칭한 몇 개의 페이스북 계정이 등장해 팬들의 원성을 샀다”면서 “팬들이 가짜 페이스북으로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CNRM미디어 측은 공개한 박정민의 공식 페이스북 아이디는 ‘OfficialParkJungMin’이며, 트위터는 ‘JungMin0403’이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 연예인 또 출판 붐

사진 애호가 소지섭 에세이 ‘길’  
가수 윤상은 ‘음악 레슨’ 번역해  
‘일본통’ 윤손하는 ‘...도쿄’ 펴내



출판계에 연예인 출간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기자 이혜영과 최여진, 가수 유진 등이 부티 노하우를 담은 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출판 시장에 연예인 출간 붐이 불었다. 지난해 열풍이 외모를 가꾸고 스타일을 다듬는 소재에 한정됐다면 올해는 연예인들이 전문적인 소재를 택하고 각종 노하우를 담은 게 특징이다.

연기자 소지섭(사진)은 최근 포토에세이 ‘길’을 발간했다.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직접 찍은 사진과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평소 사진 애호가로 알려진 소지섭은 이 책에서 특히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비무장지대의 숨겨진 곳까지 담아냈다. 소지섭이 비무장지대를 찾을 수 있던 건 최근 끝난 MBC 드라마 ‘로 드남버원’ 촬영덕분이다.  
소지섭은 제대 후 3년 동안 유명 사진기 브랜드 모델로 활동해왔다. 광고 촬영 덕분에 계절마다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며 익혔던 사진 기술까지 이 책에 담았다.  
미국 뉴욕에서 가족과 함께 유학 중인 가수 윤상은 재능을 앞세워 음악 서적 번역역가로 나섰다. 윤상은 아내인 연기자 심혜진과 함께 전제 베이시스트 빅터우튼이 쓴 베스트셀러 ‘음악레슨’을 번역했다. 음악 연주법을 인생 설계와 엮어 베스트셀러로 인정받았던 이 책은 음악 전문가 윤상의 손을 거치며 원작의 느낌을 충실히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통’으로 불리는 윤손하도 전문가 못지않은 감각을 책으로 펴냈다. 도쿄에서 10여 년 동안 살았던 그녀는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체험을 바탕으로 ‘소소한 도쿄’를 내놓았다. ‘소소한 도쿄’는 연예인들이 흔히 내놓는 일회성 여행책과는 다르다. 윤손하가 도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모은 생활 지식부터 맞춤형 쇼핑 정보와 알려지지 않은 명소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우리는 무정의 스타들.” 8일 오후 서울 왕십리CGV에서 열린 영화 ‘무정자’(감독 송해성·제작 핑거프린트) 시사회가 열린 가운데 주연배우 송승헌, 주진모, 김강우, 조한진(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 소시 ‘지니’ 첫날 오리콘 5위 ‘출발 곳’

카라 ‘미스터’ 데뷔때와 같은 성적

‘준수한 출발.’  
여성그룹 소녀시대(사진)의 데뷔싱글 ‘지니’가 발매당일 오리콘차트 5위에 올랐다.  
8일 일본 데뷔 싱글 ‘지니’를 발표한 소녀시대는 이날 오리콘 싱글차트 5위를 차지했다. 8월11일 ‘미스터’로 일본에 먼저 데뷔한 카라와 같은 성적이다.

소녀시대는 8월 25일 열린 첫 쇼케이스에서 2만2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현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일본 공영방송 NHK 저녁 메인뉴스 ‘NHK 뉴스워치

9’의 토플뉴스로 보도됐으며,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되면서 이번 데뷔 싱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소녀시대는 가창력과 춤, 무대 위 카리스마는 물론 달고 싶은 스타일 아이콘으로서도 일본의 10~20대 여성층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지니’ 활동을 통해 헤어, 메이크업, 의상스타일도 크게 히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녀시대는 지난달 11일 국내에서 발표했던 뮤직비디오를 모은 DVD ‘소녀시대 도래-일본 기념반-뉴 비기닝 걸스 제너레이션’으로 당일 오리콘 DVD 음악부



문 일간차트 2위와 첫 주간차트 3위를 차지했고 발매 3주차인 2일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소녀시대는 데뷔 싱글 관련 프로모션을 위해 일본에 머물다 11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 체육관에서 열리는 ‘SM타운 라이브 ‘10 월드투어 인 상하이’ 공연에 참석한다.

김원겸 gyummy@donga.com